



INSURANCE IN A CHANGING RISK LANDSCAPE

Local lessons from
the Southern Cape of South Africa

A report by the research partnership between
the Santam Group, the WWF, the University of Cape Town
and the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시작하는 말

UNEP Finance Initiative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과학적 근거로 미루어 볼 때, 만약 지금 당장 온실가스가 대대적으로 감축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력은 적응하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관계없이 기후는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후변화 현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며, 그에 시급히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이란 변화하는 기후의 악영향을 견딜 수 있는 삶, 커뮤니티, 사회, 그리고 경제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기후변화 위험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환경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환경 변화는 홍수, 태풍, 허리케인, 가뭄과 같이 극단적인 날씨의 빈도와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좀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들로, 해수면 상승, 사막화, 식수의 원천인 빙하가 녹는 현상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 변화에 적응을 위한 노력은 두 카테고리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은 위험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이 위험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 중 특히 첫 번째와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포함한다. 보험산업에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은 생계, 기업 운영, 기타 경제 활동이 날씨와 관련된 현상에 영향을 받을 것을 대비한 금전적 안전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험 전가는 단지 보험사가 고객에게 주는 이익의 한 형태일 뿐이다. 물리적 위험관리(리스크 인식, 평가, 예방, 감축)야말로 보험의 기반이다. 따라서 물리적 위험관리의 개선을 통해 보험 커버리지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 전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능동적인 위험관리는 커뮤니티와 보험 고객들에게 이익이 된다.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고객, 지역사회, 보험업계, 정부 등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맡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해수면 상승, 사막화, 빙하 감소 등 느린 속도로 발생하는 현상들은 부보적격성(insurability)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보험은 상업 활동이므로 고객들은 보험상품을 접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에서는 기후변화 위험에 가장 취약한 대상(개발도상국의 소득이 낮은 지역사회)은 보험상품을 접하지도 못하고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없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보험심도와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이러한 한계점, 그리고 보험 시장이 심하게 규제되어 있으며 자문 정책과 규제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전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보험계가 어떻게 지역 및 국가 정부, 정부간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그러한 대책들을 개발, 실행하고 확대할지 고민해야 한다.

UN기후변화협약의 손망실 프로그램, UNEP 금융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보험원칙 이니셔티브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과 같이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 노력,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서던케이프의 보험 및 위험 현황에 대한 본 보고서와 같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력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와 재해를 견디는 지역사회를 건립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UN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이 공동연구보고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협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시기적절한 사례들을 제공할 것이다.



Paul Clements-Hunt

Head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목 차

I. 배경	4
II. 소개	5
III. 리스크에 관한 케이스 연구 결과	7
IV. 권고안	11
V. 멀리 내다보며	12
VI. 결론	13
VII. 참조	14
VIII. 파트너 소개	15

보고서에 도움을 주신 분들

Santam

Vanessa Otto-Mentz, Head, Strategy Unit
Herman de Meyer, Manager, Underwriting
Edmond Lee, Strategy Analyst, Strategy Unit
Donald Kau, Head, Corporate Affairs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

Jeanne Nel, Scientist, Integrative Spatial Ecosystem Assessment
Belinda Reyers, Scientist, Ecosystem Services & Risk Assessment
David Le Maitre, Scientist, Flood Risk Modelling
Greg Forsyth, Scientist, Fire Risk Modelling
Andre Theron, Scientist, Coastal Risk Modelling
Sally Archibald, Scientist, Integrative Risk Modelling
Francois Engelbrecht, Scientist, Atmospheric & Climate Change Modelling
Lara van Niekerk, Estuary Scientist
Kristy Faccar, Scientist, Sustainability Science & Resource Economics

University of Cape Town (UCT) and its research associate

Clifford Shearing, Director, UCT Centre of Criminology
Tom Herbstein, Senior Research Coordinator, UCT Centre of Criminology
Jan Froesta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 Organisational Theory,
University of Bergen

WWF South Africa

Deon Nel, Head, Biodiversity Uni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Butch Bacani, Programme Leader,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Initiative & Insurance
Commission, UNEP Finance Initiative
Remco Fischer, Programme Officer, Climate Change, UNEP Finance Initiative
Keith Alverson, Head, Climate Change Adaptation & Terrestrial Ecosystems Branch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Unit, UNEP
Kaveh Zahedi, Climate Change Coordinator, UNEP

I. 배경

“변화하는 세계의 위험과 탄력성: 보험 협력”은 산탐 그룹,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학기술 연구위원회(CSIR), UCT 범죄학센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공동으로 전략 연구를 한 보고서다. 본 공동연구는 다음 요소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력 고취를 목표로 한다:

- 위험** 사회생태적 위험 현황을 공간적, 시간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서술
- 탄력성** 사회생태적 탄력성의 현 상태와 동인을 이해하고 서술
- 역할** 위험을 줄이고 탄력성을 높이는 보험(공식적·비공식적)의 역할 이해
- 반응** 위험 축소, 사회·생태적 상황과 이 분야에서의 탄력성 개선에 대한 공식적 보험산업의 예상 반응을 규명

본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첫 평가 단계와 UNEP FI의 추가적인 도움에서 얻은 주요한 통찰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관점을 장착한 지역적 연구의 독특한 조합으로서 보험사들이 기후와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어떻게 일조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II. 소개

우리는 전례 없는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몇몇 사회평론가들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칭하기도 한다(Beck 1992, 2006; Matten 2004). '위험 사회'의 개념은 세계화의 확산 현상과 환경 위험의 연결점에서 유래되었다(Matten 2004).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EA 2005)와 같은 글로벌 평가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모두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분류되는 기후 변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위험(그림 1)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11).

증가된 위험들은 다음의 현상들과 관련되어 있다:

- 1 극단적인 현상에 노출된 지역에서의 일자리 증가와 그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 증가
- 2 지구 시스템의 대규모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인 현상 발생 횟수 증가(기후 변화 등)
- 3 극단적 현상에 대한 완충능력을 제공하는 생태계(습지, 하천 부지, 자연 초목 등)의 변화 - 이 변화들은 주로 급속한 토지 피복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MEA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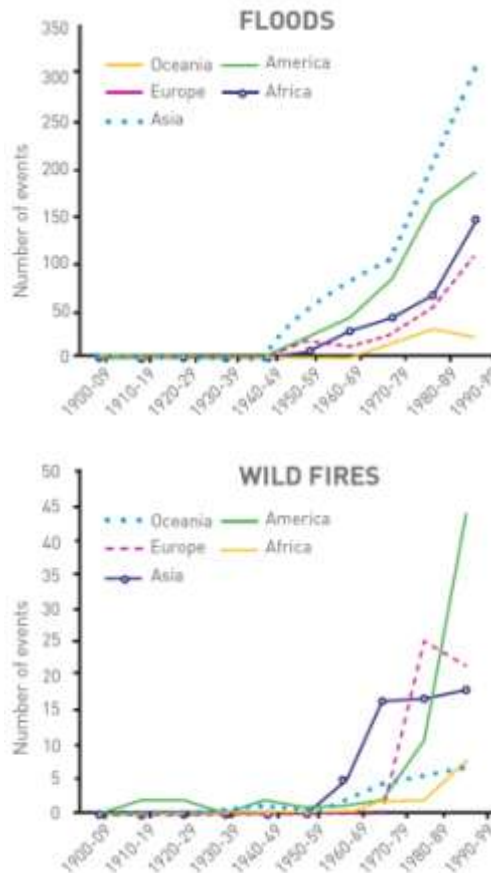


그림 1: 대륙별 홍수와 자연 화재 기록 횟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2005)

이러한 경향들로 미루어 봤을 때, 사회가 더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사회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들을 모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의 보험산업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보험산업 자체에서도 요동치는 현시대를 조심스럽게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보험사들은 극단적인 날씨 현상 빈도수와 심각성의 증가와 그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의 증가로 인한 날씨 관련 보험 손실에서 상승세를 목격했다. 더욱이 이러한 날씨 관련 손실은 보험심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밀도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험의 구입 가능성과 지불 가능성에 압력을 주고, 산업의 성장을 지연시키며, 가장 중요하게는 더 심각한 위험 노출이 정부와 개인에 전가되게 한다.

보험산업은 주로 위험의 더욱 적절한 가격 책정과 계약을 목적으로 위험 예측과 평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면서 문제에 대응해 왔다(Mills 2009, Petherick 2011). 불행하게도 기후 과학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예측의 규모 및 정확성과 보험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Petherick 2011).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장 큰 단기보험사인 산탐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덴지구 지방자치국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목적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우리 연구에는 두 개의 목적이 있다.

- 1 에덴의 풍경 변화가 자연 화재, 홍수, 해상 폭풍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위험 노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 위함
- 2 보험산업이 생존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생태적 시스템의 탄력성 구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일지 이해하기 위함



그림 2: 에덴 지구 지방자치국 위치 - 본 연구의 중점

다양한 지형 조건, 산탐이 보증하고 있는 자산규모, 최근에 나타났던 변덕스러운 날씨 등을 원인으로 하며 본 연구지역이 선택되었다. 지리적으로 케이프 지역 남부까지 포함하는 웨스턴 케이프주(州)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여덟 번의 심각한 폭풍 현상으로 250조 랜드(약 2950만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을 봤다. 직접적인 손실 중 70% 이상이 에덴 지구에서 발생했다. 1996년 이후의 '특별 위험(폭풍, 바람, 물, 우박/눈과 관련)' 손실 중 약 80%를 최근 5년간 산탐에서 부담을 했다.

Ⅲ. 위험에 대한 케이스 연구 결과

우리의 연구는 변화하는 위험에 관련하여 세가지 주요 결론을 도출했다.

기후변화가 리스크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음

역사적인 기록과 CSIR(Engelbrecht, 2011)이 실행한 고해상도의 기후 가상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은 향후에도 지역 기후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 온도의 변화가 가장 심각했다. 이 지역의 겨울과 봄의 온도는 지난 1세기 동안 약 1.4도 증가했고 2040년까지 1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맥아더 화재 위험 지수(FDI-MacArthur 1966), 그리고 온도, 풍속, 상대 습도 변수에 대입한 값을 이용하여 우리는 화재위험이 높은 기간(3일 이상)이 1960년~1990년 기간보다 2020년~2050년 기간 동안 약 4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Forsyth 2011). 이러한 증가는 겨울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겨울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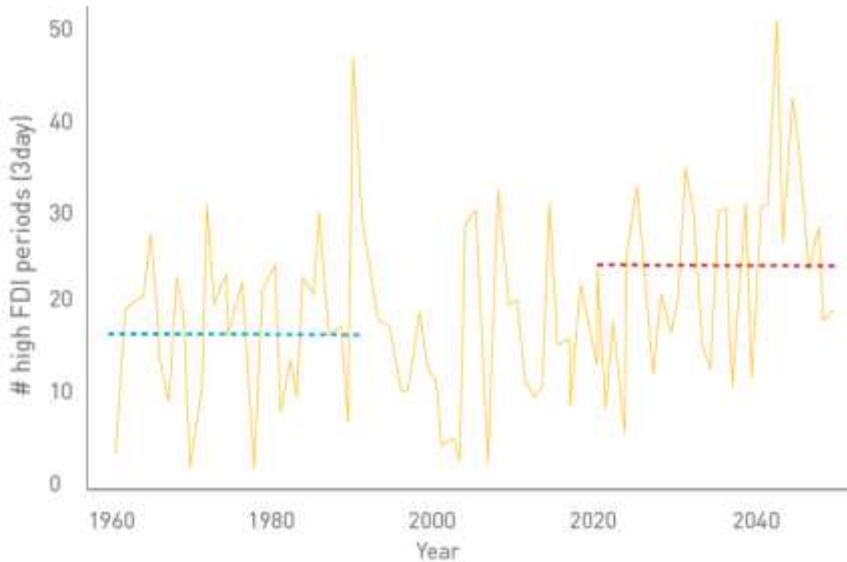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지역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기간

더욱이, 우리의 기후 가상 모델은 전체적으로 연간 집중 호우 기간(>20mm)의 횟수가 1960년~1990년 기간에 비해 2020년~2050년에 비해 완만하게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Le maitre et al. 2011). 그러나 이 추세는 동절기에 훨씬 더 두드러졌는데, 동절기 증가율은 36%로 예측되었다. 이는 1960년부터 2008년까지의 집중 호우 증가를 보여준 과거 경향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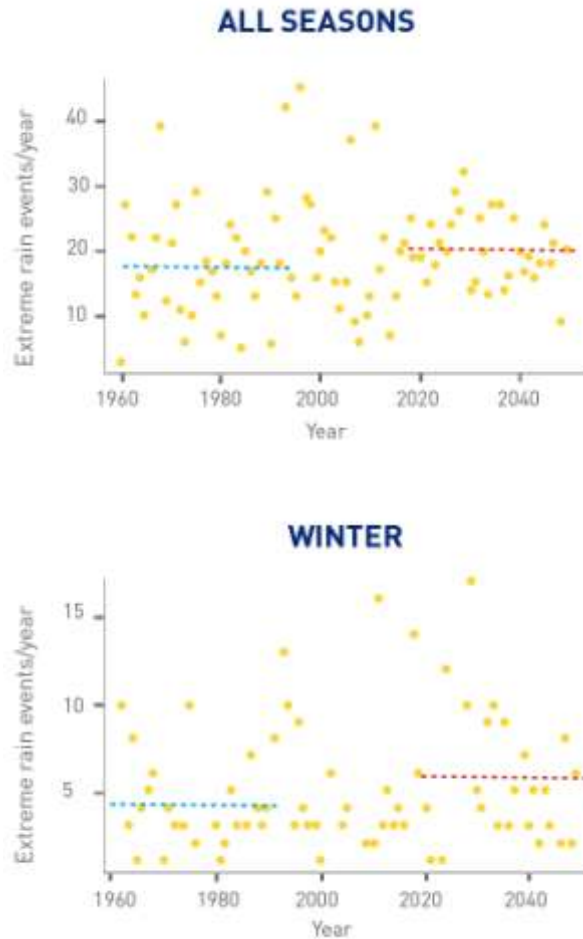


그림 4: 연구지역에서의 집중 호우 일수

마지막으로, 2007년 기록을 바탕으로 해상 폭풍 모형은 극단적 급류 현상은 2100년까지 1m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여섯 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생태적 완충능력의 변화는 기후 변화만큼 중요하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론중 두 번째는 인간에 의한 토지피복과 생태계의 완충능력 변화가 기후변화와 비교했을 때 그 이상으로 위험 증가의 요인에 있어서 중요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기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외래종 나무(소나무 종, 아카시아 종, 유칼립투스 종)의 침투가 연구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화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그림5), 이는 화재 빈도수 변화의 37%를 설명한다는 것을 밝혀냈다(Forsyth et al, 2011). 연구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핀보스 지대 또한 화재에 약하기는 하지만, 외래종 나무들이 침습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은 기간의 수가 31%~37%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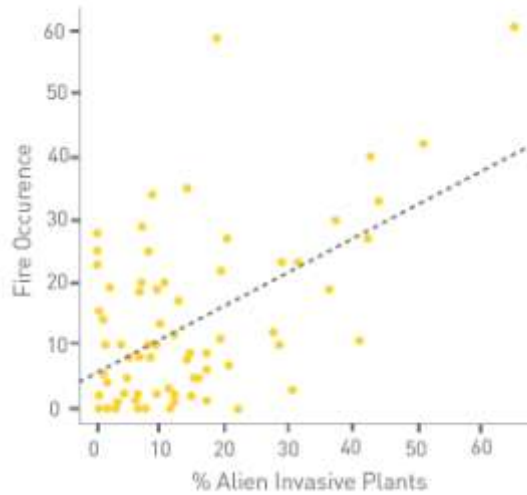


그림 5: 침습성의 외래종 식물들의 발생 빈도에 대한 화재 발생 함수 반응 (비선형 변위지 회귀 함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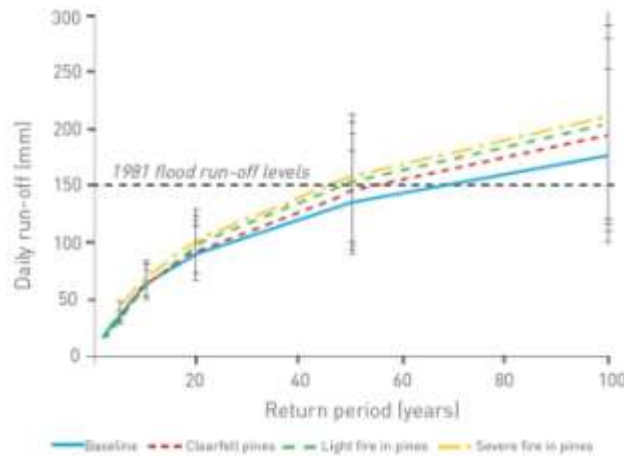


그림 6: 네 가지 토지피복 시나리오에서의 평균 일일 유실의 기대 수익 기간

연구지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기록된 토지 표면의 변화가 미래의 강우량 극치 현상 증가 예측과 비교했을 때 지표수 흐름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Le Maitre 2011). 상업적 수림의 빈번한 대형 산불, 플랜테이션 그리고 조림사업이 뒷받침 되지 않은 무분별한 벌채는 일일 150mm(1981년 홍수 당시 측정치)의 극단적 범람 주기를 40%까지 단축할 수 있다(그림 6).

마지막으로, CSIR이 개발한 공간적 해안 위험 모형을 사용한 결과 해안의 전사구들이 파괴되고 이 구역의 표면이 경화되는 현상이 사구 침식을 증대하는 해안 위협의 가장 주요한 예측치로 작용했다(Theron et al. 2011).

이러한 발견들이 함축하는 바는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먼저,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예측과 비교할 때, 생태 시스템의 완충 능력에 대해 인간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거나 보다 큰 위협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둘째, 이는 사전 경영 방침과 이러한 생태학적 체계의 회복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향후 위협의 증대를 완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리스크는 복잡계의 떠오르는 자산

우리의 세 번째 주요 발견은 우리의 모형이 예측된 기후 변화와 생태적 완충 능력에 대한 인간 활동 영향에 기반하여 광범한 리스크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과 동시에, 모든 개별적 자산에 대한 실질 리스크가 각각 다른 리스크 창출자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있어서 떠오르는 자산이라는 점이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지난 20년 간 관측된 대로, 지표 변화가 지표면 범람 주기를 75년 당 1회에서 45년 당 1회로 거의 반감시킨다는 것을 보였다(Le Maitre et al. 2011). 이러한 상황 하에서,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후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50년 당 1회의 유량 측정 모형을 설립하는 것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 나아가, 우리는 동절기 기온 상승이 겨울철 산불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그림 7),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는 집중 호우 현상이 동절기에 특히 빈번함을 밝혔다(그림 4). 최근 불에 탄 지역에 대한 집중 호우는 지표 범람과 유실을 크게 증대시키며(DeBano 2000), 따라서 홍수의 위험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기후 변화만을 고려할 때조차도 우리는 개별 자산의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 다른 동인(drivers)들이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 발견은 보험 산업계에 가해지고 있는 더욱 미세한 리스크 산정 모형과 더 나은 리스크 가격 차별화에 대한 압력에 대해 경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계 내에서, 현존 예측 모형의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더욱 미세한 리스크 산정 모형의 유용성에도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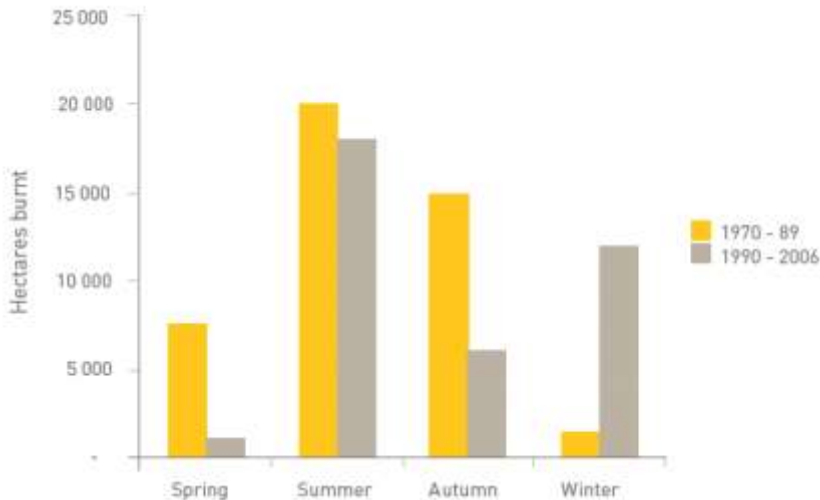


그림 7 : 아우테니쿠아 자연보호 구역 내 계절에 따른 화재 지역, 연구 지역 내, 2개 기간(1970-89, 1990-2006)

IV. 권고안

1 리스크 산정에 대한 체계적 관점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다양한 리스크 동인(drivers)들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계에서, 우리는 설명력을 강조하는, 즉 서로 다른 시나리오 내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시스템 모형이 전통적으로 예측력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리스크 산정 모형에 비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스템 모형은 단일하고 명확한 리스크 확률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주요 리스크 동인들에 관한 설득력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확률을 제공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접근은 예측 모형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피하고 불확실성을 보다 뚜렷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모형은 보험 산업을 진정한 리스크 요인에 집중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산업의 리스크 산정 작업을 리스크 요인에 타겟을 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2 리스크 산정에서 리스크 경영으로

이 보고서는 리스크의 차별화와 가격화에 초점을 둔 미세한 리스크 산정 도구에 의존하는 전략의 한계에 대해 경고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험 업계는 리스크 산정에 더하여 잠재적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체계적 리스크 요인들에 초점을 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고무적인 결과는, 우리가 연구했던 각각의 위협 요인들(산불, 홍수, 해상 폭풍 등)에 있어서 우리는 기후 요인들과 비교할 때 지역적 지대 변화에 유사하거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의 기후 변화와 연관된 리스크의 대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학 기반의 적응'의 근본인 것이다(IUCN 2008).

산불에 있어서, 우리는 침습성 외부 수목의 발생이 로컬 지대의 주요 변화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화재에 취약한 이러한 침습성 수목의 근절 혹은 통제는 기존에 기온 증대로 인해 증대되었던 향후 화재 리스크를 감축하는 리스크 관리를 제공한다.

홍수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표면에 대한 지역적 변화, 특히 상업적 플랜테이션의 대량 벌채 및 재건 미비와 이러한 플랜테이션 지역의 대형 산불이 리스크의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벌채에 따르는 활발한 자연 식생 재건 노력과 해당 지역에 대한 산불 관리는 따라서 두 가지 주요한 실용적 리스크 관리 대응이 된다. 데이터 유용 가능성으로 인해 삼림 관련 지표 변화에 연구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습지 및 하천 부지의 감소와 같은 여타의 변화들도 홍수에 동일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태계의 활발한 재건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대응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사구의 침식, 인위적인 해안 지역 경화 그리고 해안 모래의 유용성 감소가 지역 지대 내 해상 폭풍의 주요 동인임을 발견했다. 사구 식생의 활발한 재생과 안정화, 전사구의 재건, 해안 모래의 보충 그리고 인위적인 경화 활동의 감축은 해안 지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V. 멀리 내다보며

공유된 리스크에서 공유된 가치로

보험 산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전적 리스크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정부, 사회, 보험 산업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립적인 보험 산업의 부재, 혹은 단순히 사회 내 보험 부문의 축소는 정부 및 사회 구조(공동체 기반 비영리 조직 등)에 막대한 리스크 노출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간 보험 산업이 자립적으로 유지되고 가능한 한 넓은 사회적 부문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 및 사회의 이해와 일치된다. 동일하게, 보험 산업 또한 그것의 아이덴티티 및 리스크 노출 산정과 관리를 발전시키고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 부문의 신중한 입법, 정책, 관리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 증대는 따라서 보험 산업계와 정부 및 사회에 공유된 위험성을 제기한다. 이는 협력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유된 리스크를 인식하였다면,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혹은 Porter와 Kramer에 의해 조인한 봐와 같이, '공유된 가치'의 창출로 나아갈 것인가(Porter & Kramer 2011)이다. Porter와 Kramer는 기업들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이익 최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이의 분열을 넘어서서, 사회와의 '공유된 가치' 창출 보다 통합적 개념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Porter & Kramer 2011).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공유된 가치란 기업들의 '가치 재분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가치의 전체 범주를 확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유된 가치는 따라서 사회 및 경제적 발전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고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Porter & Kramer 2011). Porter와 Kramer(2011)는 기업들이 사회와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프레임워크의 간극과 실패를 규명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재건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번 케이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보험 산업계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할 가장 극명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의 주요 사회적 노드(node)들 간의 연결을 규명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유된 가치를 위한 이러한 노드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험 산업계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현존하는 보험 산업계와 주요 노드들 간의 연결의 강도

2 이러한 노드들의 가치 창출력과 주요 로컬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변화 역량

예를 들어, 보험 산업은 현재 지역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변화 역량이 부족한 **고객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과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 이는 크게는 정보 및 협력 활동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드들이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 때문에 그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 산업계는 로컬 지대의 진정한 체계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좀 더 집중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고객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출함으로써 공유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유사하게, **지역 정부 기관들** 또한 지역적 리스크 요인들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보험 산업과 지역 정부 간 연계가 현재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이는 공통의 어젠다 부재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지역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공동 대응 프로젝트를 이끔으로써 공통의 어젠다 개발과 연계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사례로서, 생태계 경영과 재생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다양한 **생태학적 기관**들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적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할 강력한 잠재력, 즉 침습성 외부 수목들에 대한 관리나 전사구 및 습지의 재생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산되고 협소한 권한으로 인해 제각기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리스크와 보험 업계와의 연계도 미미한 실정이다. 공유된 가치의 창출 기회는 이러한 에이전시들 간의 강력한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통일성과 특정 지역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경영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VI. 결론

보험 산업은 GDP의 8% 가량과 글로벌 자산의 11% 가량을 차지하는 단일 최대의 글로벌 사업이다(Petherick 2011). 이는 또한 사회, 경제, 생태계를 연계하는 매우 광범한 범주를 가진다.

이처럼, 글로벌 보험 산업은 기후 변화 및 생태계 파괴와 관련하여 공유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지역적 차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작업이 다른 산업에서,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또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포괄적인 교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한 가지 명백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기회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는 공동체를 회복함에 있어서 글로벌 보험 산업의 리스크 관리와 이전 전문성, 활동을 UN 산하기관들과 시민 사회 조직 그리고 학계에 연계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다양한 조직체의 협력은 이러한 기회가 어떻게 촉발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Ⅶ. 참조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Beck (2006)

World Economic Forum's Global Risks report – 6th edition (2011)

DeBano L.F. (2000) The role of fire and soil heating on water repellency in wild land environments: a review. *Journal of Hydrology*, 231-232, 195-206

Le Maitre, D. (2011)

MacArthur (1966)

Matten (2004)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Mills (2005) *Science*

Mills (2009)

Nel, J. et al. (2011)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 of global change for the Insurance industry: The Eden case study. CSIR Report:

CSIR/NRE/ECOS/2011/0063/B

Porter & Kramer (2011)

Petherick (2011)

RADAR (2010)

Ⅷ. 파트너 소개

산탐(Santam)은 90년의 경험과 22%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진 단기보험사다. 산탐은 남아프리카 내 기업, 상업, 개별 시장에 포괄적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도, 말라위, 보츠와나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도 사업조직을 갖고 있다. 산탐은 2009년 UNEP FI에 합류하였으며 2012년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컨퍼런스에서 개시될 UNEP FI 지속 가능한 보험 원칙의 발전을 선도하는 보험 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산탐은 ClimateWise에 가입한 최초의 아프리카 보험사이며 현재 관리위원회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www.santam.co.za

WWF는 1961년에 창설되었으며, 전 세계에 걸쳐 100여 개국과 130개 이상의 협력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가장 규모가 크고 독립적인 보존 단체 중 하나다. WWF의 임무는 전세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오염과 소모적 소비를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자연 환경 파괴를 멈추고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다.

www.wwf.org.za

UCT 범죄학 센터는 케이프타운 대학 법과대학의 공법 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리서치 기관이다. 해당 센터는 범죄학의 광범한 분야 내에서 리서치와 외부 서비스를 개시, 조율, 발전시키며, 해당 학문의 모든 측면에 관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두 가지 주요 분야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치안 유지 발전에 근본 초점을 두고 있는 물리적 안보, 둘째, 기후 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환경 변화와 관련된 환경적 안보이다.

www.criminology.uct.ac.za

CSIR은 아프리카 내의 선도적인 과학기술 연구, 발전, 적용 기관 중 하나이다. 1945년 법령에 의해 과학 위원회로 설립된 이래, CSIR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적, 과학적 발전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및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CSIR은 국제 경제 안에서 남아프리카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과학 기술 서비스와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으며, 상업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사적 및 공적 부문에서 신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CSIR의 이해 관계자는 과학기술부에 의해 대행되고 있는 남아프리카 의회이다.

www.csir.co.za

UNEP FI는 환경적 이슈를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출범한 UN 내 조직인 UNEP와 글로벌 금융 부문들 간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다. UNEP FI를 통해 UNEP는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보험 회사, 은행, 투자 회사와 연계함으로써 금융 산업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의 영향력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어 버전 감수: 김형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

www.unepfi.org

